

여름철 폭염 속 노인 돌봄체계 본격 가동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응급 안전 서비스·무더위 쉼터 운영 강화 등 폭염 대비 총력 대응

최근 전주시내에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을 비롯한 돌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인 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체계가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6000여 명의 돌봄 대상 노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13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403명을 활용해 전화 및 방문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도 구축했다.

특히 시는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에는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고온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강 수칙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돌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방법과 건강관리, 응급처치, 폭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차세대 대내장비를 설치

해 상시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응급안전 지역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비대상자로 관리되며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지역에는 374개 경로당을 포함한 총 648곳의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으며, 시는 노인복지시설 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기 작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는 무더위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이용 안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홍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재난안전 부서와 협력해 실외 공간에는 그늘막과 에어커튼, 냉온열의자 등의 폭염 대응 시설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여름철 폭염이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쉼터 운영, 민간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급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길고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실천 과제 도출'을 주제로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전주시의회, 도시계획 현안 진단·대안 모색 '시민 공론장' 개최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달 30일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실천 과제 도출'을 주제로 시민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공론장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과 김세혁 부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전주의 도시계획 현안을 진단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전주의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맡아 '대자보 도시가 전주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주공동체라디오 김길중 PD, 전주시의회 박형배 위원장, 공공문화연구소 강현정 소장이 참여해 '보행자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전주공동체라디오 '도시이야기' 특집 방송과 연계해, 방송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박형배 위원장은 “전주의 도시계획은 행정과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탄소중립 완산마을’ 문 열어

전주시, 완산동 탄소중립 거점 공간 여는 날 행사 개최

전주시 완산동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점 공간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지역 청년 환경단체인 프리데코(대표 모아름드리)는 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대표, 전주시의원, 지역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완산마을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 완산마을 조성 경과보고 △활동 방향과 비전 등 운영계획 보고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다화용 컵과 음료 디스펜서를 사용하고, 친환경 홍보물

등 저탄소·저폐기물 운영 원칙이 적용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제로웨이스트 등의 주제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며 일상에서 기후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성됐다.

공간 운영은 청년 환경단체인 프리데코가 맡게 되며, 이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워크숍, 야바바다 장터, 대화용기 실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지역 청년 환경단체인 프리데코는 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대표, 전주시의원, 지역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완산마을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완산마을을 지역사회 내 기후 활동의 플랫폼이자 시민이 참여형 탄소중립 실험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시민 일상의 가까운 곳에서 기

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전주의 첫 번째 마을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풀뿌리형 기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고덕생활축구장 주차장,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지정

고덕생활축구장 주차장도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지정됐다.

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고덕축구장 주차장은 전주 완산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주차장 범죄 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고덕축구장 주차장은 상향별 대응매뉴얼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권희성 기자

호성동 지역주민 400여명에 영양 가득 삼계탕 나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창호)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현옥), 새마을협의회(회장 이용운)는 1일, 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영양 가득한 삼계탕을 지원했다.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인 '우리 함께, 행복한 삼계탕 나눔' 사업은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호성동 새마을부녀회·새

마을협의회가 처음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이다.

전주시 새마을 천년전주 후원회(회장 황승일)에서 삼계탕 400마리를 후원해 나눔에 대한 큰 의미를 더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삼계탕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30세대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삼계탕을 전달하여 식사 제공을 넘어 이웃을 향한 정성과 관심까지 함께 나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80세 이상 시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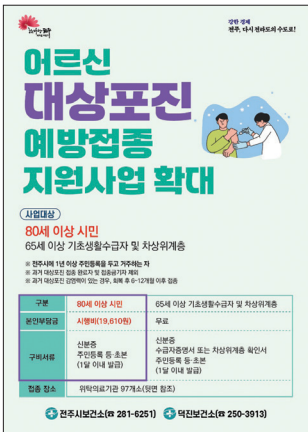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가능했던 전주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 80세 이상 시민까지 확대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80세 이상 모든 시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는 80세 이상(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주 시민으로,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 시 1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용은 1만9610원이다.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전주시 누리집 또는 보건소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피어나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액 30%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
- 남원 인재학당 채움사업 (책상의자 세트, 셔틀버스 구입)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남원시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